

KT&G, 신약 개발에 주력

KT&G가 신약개발 벤처기업인 머젠스를 인수했다.

KT&G(사장 민영진)는 신약개발 벤처기업인 머젠스의 지분 60%를 취득하고 신약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.

KT&G는 “현금 투자와 함께 내부에서 개발해온 신약 후보물질의 현물출자를 병행해 머젠스의 신주를 약 300억원에 인수했다”며 “머젠스는 KT&G 제약사업 부문의 핵심 자회사가 됐다”고 밝혔다.

2002년 설립된 머젠스는 당뇨, 비만 등 대사질환 분야의 신약 개발기업으로 현재 임상시험 중인 대사질환치료제 후보물질 <MB12066>을 비롯해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KT&G는 “머젠스 인수로 국내외 담배·건강식품·화장품 사업과 함께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12/27>